

# 똑딱 똑딱 엄마표 홈소품...패치워크로 멋 내세요



## 리빙 & 아트

### DIY 홈패션

아이들 옷·쿠션·가방·커튼...

하루 배우면 작품 하나 거뜬

천 조각 꿰어 붙이는 패치워크

퀼트 느낌 살려 제품 고급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드는 상품을 DIY(do it yourself)라고 한다. 반제품 상태의 제품이나 재료를 구입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하도록 한 상품이다. 목공예나 리본, 펠트, 비즈 공예, 리폼, 폼아트, 스텐실, 가죽공예 등 종류도 다양하다. 홈패션도 그 중 하나다.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보면 홈패션 가게가 종종 눈에 띈다. 재봉틀로 만든 쿠션과 가방, 지갑, 커튼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솜씨 자랑을 한다. 손재주가 없으며 자신없는 사람이라도 전문가의 도움만 받으면 하루만에 자그마한 작품 하나는 똑딱 만들 수도 있다.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에 반해 이제는 홈패션 전문가가 된 반혜연(37씨). 광주 남구 봉선동에 '시스템스 소잉'이라는 솜을 차리고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 CEO다.

"40~50년 전만 해도 결혼할 때 신부측 혼수품으로 꼭 준비해야했을 정도로 집집마다 재봉틀은 필수였어요. 한동안 잊혀지고 폐물취급을 받아왔던 재봉틀이 5~6년

전부터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퀼트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과거보다 다루기 쉬운 재봉틀이 나오면서 취미로 시작해 어느새 원하는 제품을 똑딱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재봉틀은 대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매력에 빠져드는 것이다. 손재주가 없다고 격정하던 사람들도 몇 차례 연습후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실력이 쌓이면 홈패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활동이 어디 있을까 싶다.

시스템스 소잉에서는 취미반과 중·고급반, 전문가반으로 나뉘어 배울 수 있다. 입산부들이 태고 삼아 신생아 용품을 만드는 베이비반도 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기법이 달라지지만 반혜연씨는 패치워크로 해야 가장 예쁘다고 알려준다. 패치워크(patchwork)는 여러 가지 색과 무늬, 크기, 소재의 작은 천 조각을 서로 꿰매 붙이는 것을

말한다. 바탕이 되는 기본 천에 작은 천 조각을 붙일 때도 있다.

"한가지 천으로만 만들면 작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다양한 천이 필요없으니까 비용도 저렴하겠죠. 하지만 패치워크는 고급스러운데다 퀼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품으로 만들었을때 느낌이 달라요. 쓰다 남은 천이나 헌 천을 형지대로 재단해서 기하학적 무늬나 다른 무늬로 배색효과를 살리면서 이어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패치기법을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재봉틀은 의외로 다루기 쉽다. 드르륵 다가오는 바늘에 겁을 먹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다. 가정용 재봉틀은 1~2시간 정도만 익히면 금세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손재주가 있는 이들이라면 사용설명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초보자들은 전문가에게 기본 노하우나 간단한 기법까지 배우면 보다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기계 조작이 어느정도 가능해지면 다음은 박음질 기술을 배운다. 실을 끼우고 천을 가져다 대면 알아서 작동해 해주긴 하지만 맞물린 천이 울지 않게 하거나 원단마다 질감이 다르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재봉틀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소품은 다양하다. 보조가방부터 아이들의 배낭, 핸드백, 파우치, 에코백, 도시락 가방은 기본에 아이들 옷, 필통, 주방장갑, 메모꽂이, 벽걸이까지 온 집안이 엄마표 홈패션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홈패션으로 필통을 만들기 앞서 모아놓은 원단과 도구들.



아이들이 사용할 소품에는 분실 방지를 위해 네임택을 붙여준다.



필통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인 지퍼달기. 옷감이 뜨지 않도록 꼼꼼하게 박음질한다.

## 강렬한 색감에 스민 노화백의 '자연·삶·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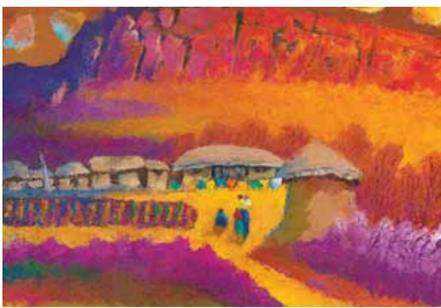
### 고흥 남포미술관 30일까지 김재형展

50여년 간 그림과 함께 해온 김재형(전 호남대 교수) 화백은 타고난 감성과 색채감각으로 자연과 삶, 신앙이라는 주제를 독자적인 화풍으로 작품에 담은 작가다.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 속에 담긴 소박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그의 작품은 강렬한 색감과 두터운 마티에르가 더해져 깊이와 무게감을 선사한다.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이 오는 30일까지 김 화백을 초대해 '자연·삶·신앙'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김 화백이 오랜 숙고 끝에 선정한 대표작들이다. 1980년대 작품인 '불갑사 풍경'부터 근작인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등 회화 34점이 전시돼 김 화백의 화업인생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김 화백은 순창 출생으로 조선대 미술학과와 경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장, 1996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고향'

을 역임해 광주비엔날레 창설 공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호남대 예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 미술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05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문의 061-832-0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빨대로 꾸민 작품...무더위 잊은 유쾌한 상상

### 광주신세계갤러리 12일까지

### '아트바캉스 : 더유닛 The Unit'展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바캉스 : 더유닛 The Unit'전을 오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빨대, 전선, 한지, 솜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에 참여하는 구본석·김일화·노동식·라다운·신치현·윤종석·이동재·이재호·장춘석·홍상식 등 10명의 작가는 사물에 대한 유쾌한 상상을 엮고, 재미있게 녹여낸 회화, 입체,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완성된 작품의 모습은 신체의 일부나 일상적인 생활 풍경 등 걸음으로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료의 점·선·면이 만나 이루어진 조합이 인상적이다.

구본석 작가는 작은 LED 조각들로 도시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이재호 작가는 나무 조각들을 다양하



라다운 작 '남대문을 스치다가'

게 조합해 둥근 형태의 조각을 완성했고, 김일화 작가는 한지를 말아 캔버스에 수놓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전시로 남대문과 도시 풍경을 만들어낸 라다운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